

2010년 사업계획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2010년 매출목표 2,010억원

## 제2회 결식 ZERO 프로젝트 『UP 스쿨』 합동 결연식

2010. 5. 18 (화) 10:00 부산광역시서부교육청, (주)태이건설, 선보공업(주)



## 결식 ZERO 프로젝트 『UP 스쿨』 서부교육청과 『합동 결연식』 체결



우리 회사는 지난 달 18일 서부교육청에서 "UP 스쿨" 결연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청-기업-학교 간 나눔과 기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내학교

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위한 '합동 결연식'을 체결했다. 이 체결을 시작으로 우리 회사는 6월부터 영도구와 사하구 소속인 다대초·중학교를 비롯한 5개교 저소득계층 자녀의 초·중학생 163명을 대상으로 약 1200만원의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서 최급식 대표이사는 "가정친화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보의 경영방침과 뜻을 같이 하는 '프로젝트 합동 결연식'에 동참할 수 있어 영광이다. 이 자리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보고 작지만 사회의 글을 비추는 따뜻한 햇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그는 "기업의 성장으로 거둔 열매는 사회공동체의 몫이라는 평소신념대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데 힘쓸 것이며, 이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과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회사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 김진수 전무이사

### 서로간의 '소통(疏通)', 회사발전의 '핵심열쇠(Keyword)'

어떤 일이든 소통방식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그 당연한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다. 특히 무언가를 이룩해내기 위해서는, 이익과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입에 분명하다. 회사 내에서 근무를 할 때 이 원리는 일맥상통한다. 서로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이번에 영도공장에 부임한 김진수 전무이사를 만나보았다.

### '돌니바퀴'의 효과

새롭게 영도공장에 부임한 김진수 전무이사는 한진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한 1980년 5월부터 약 21년간 조선관련 업무에 온 힘을 쏟았다. 흔히 우리가 부르는 '대기업'이라고 일컫는 곳 중 한 곳에서 몸담아온 그가 그간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선보로 왔다. 그는 "대기업 혹은 큰 기업으로의 장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전에 기업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능력을 개발하고, 자신이 맡은 업무에 에너지를 얼마나 투영시키느냐에 그 결과가 달랐다"라고 말한다. 즉,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회사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직원들이 회사 내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회사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회사는 구성원들이 화합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해야 하고, 직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회사에 일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고의 유연성만이 살 길'

회사의 규모가 작든 크든 회사의 임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 김진수 전무이사는 그 임원의 막중한 역할의 핵심으로 '사고의 유연성'을 꼽는다. 그는 "매순간,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보다 먼 미래를 올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고 범주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높은 곳에 올라서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듯이 주어진 역할 안에서 무엇을 해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마인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다양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해외수출에 대한 관심을 가진 다거나 앞으로 선보 비즈니스의 방향, 상품이 병행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회사 내 각 분야간의 이해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 응징이가 물이 고이면 썩어서 냄새가 나듯이, 일하는 내내 직원간의 이해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리더의 중요성'

회사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도, 기업으로의 정신을 준수해야 하는 것도 기업의 리더들이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라고 말하는 김진수 전무이사. 그는 서로간의 입장표명에 급급해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아야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과도한 요구 등의 급진적인 모습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라는 그가 앞으로 선보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선보가족'의 일원으로써의 의무감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끊임없이 모색해나갈 것이라는 그의 모습에서 좀 더 밝아질 선보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 함께 뛰면서 건강도 챙기고 동료애를 다져요

우리 회사는 회사 차원에서 해마다 연 2회씩 국제신문에서 주최하는 마라톤을 참가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16일 부산 국제 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업무로 인하여 평소 소홀하기 쉬운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대회를 통한 '단합심'과 '애사심'을 키우기 위한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행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70여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마라톤에 참가한 한 직원은 "1년에 2회씩 열리는 마라톤에 참여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었다. 때로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많은 추억들을 쌓았던 것 같다. 특히 이번 마라톤에서는 단순한 참가에 의미를 두지 않고 좋은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대회가 열리기 몇 달 전부터 꾸준한 운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했다. 하지만 막상 경기 전날 열린 회사 체육대회에 열성적으로 참가한 탓에 생각만큼 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며 대회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전했다.

한편, 대회 주최 측에서는 "이전과 비교해 대회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꾸준하게 회사 내에서 독자적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만큼, 직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직원들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Run SUNBO Run 회사 소식



## 자신과 가족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금연해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 공장을 금연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매주 공장별 금연상담을 개인별로 실시하고 있다.



금연상담에서는 금연보조제 무료지급, 심박수 측정, 담배의존도 테스트를 비롯해 금연 홍보영상 상영 등의 행사를 하고 있으며, 회사 출입구에 금연 현수막 및 금연 전광판을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금연성공 문자 메

시지 발송 서비스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금연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금연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금연 운동이 시작되고 몇 달이 흐른 현재, 금연달성 인원이 약 10%에 달하며, 전체의 70%의 인원이 흡연량을 줄여나가고 있다. 건강과 가족을 위해서 금연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최고위층 임원에서부터 전사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금연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 사내학습조 성과 중간 발표회



우리 회사는 지난 12일 대표이사, 상임고문, 15개조 학습조장 및 총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학습조 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각 학습조의 3개월 동안의 중간 활동현황에 대한 점검 및 TOP의 현장지도 목적을 실시되었으며, 최우수학습조 및 우수활동 학습조원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1공장 학습조인 '도후도' 부터 마지막 'Standard조' 까지 2~4월까지 학습활동 실적, 우수 학습활동 사례, 우수 학습조원 소개,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함으로써, 다른 학습조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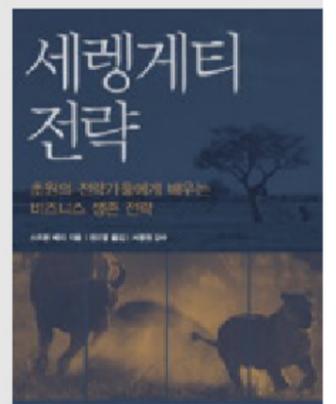
최우수 학습조상은 문제해결에 적극적이고 성과 달성 정도가 분명하며, 생산성 증대에 적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평가를 받은 '도후도(학습조장: 정재현 계장)' 조가 수상하였고 부상으로 상금 50만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각 학습조별 우수활동 학습조원에 대해서는 1인당 표상금 10만원이 지급되었다.

이날 상임고문은 종합 호시를 통해 △ 학습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학문에 접근하고 이론을 선행공부하고 △ 학습주제를 명확히 하고, 학습조장의 리더십 아래 일선분란하게 활동해야 하며 △ 요점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요령 향상 등을 당부하였다.

Life 최흥렬 상무의 이달의 책

## 세렝게티 전략

사자, 기린, 얼룩말, 코끼리, 하마 등 초원의 동물들에게서 최고의 전략을 찾는다! 세렝게티 동물들의 생존 전략을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에 접목한 책



수천수만 년 동안 가뭄과 경쟁,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종족을 보존하며 살아남은 대초원 세렝게티의 동물들. 세렝게티에서 어떤 동물들은 속도를 이용하고, 또 어떤 동물들은 잠행 기술을 동원한다. 협동 능력을 발휘하는 놈들도 있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녀석들도 있다. 세렝게티에서 성공의 열쇠는 적시에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세렝게티 전략』에서는 저마다의 생존 전략으로 살아남은 모든 생명체들에게서 사람과 조직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를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단 기적인 경영 기법이 아니라 기업이 생존하는 한 언제나 효용가치가 있는 변화와 혁신 전략들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신혼여행지로 처음 방문했던

세렝게티의 매력에 빠져 이후 여러 번 세렝게티를 둘러보고 많은 동물들과 그들의 생존 전략을 관찰했으며, 이를 현대의 비즈니스에 접목해 치열한 비즈니스 정글에서 살아남는 비법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얼룩말은 투쟁, 도주, 군집, 부동, 날뛰기라는 5가지 생존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코뿔소는 한 방향으로 끈기 있게 돌진하고, 하이에나는 다른 누군가를 이용하며, 악어는 잠행과 기습을 함께 사용한다. 사자는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고, 코끼리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최대한 활용한다. 자신만의 독특한 전략으로 생존 경쟁에서 승리를 거머쥔 수많은 동물들의 사례에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 어버이날 기념 점심오찬



우리 회사는 매년 가족친화정책의 일환으로 따뜻하고 유연한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하고, 어버이의 은혜를 되새겨 보자는 의미에서 어버이날을 기념 점심오찬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직원들이 "비록 작은 행사였지만 가족 친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여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성장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어버이' 같으신 분들을 모시고 대표이사님과 함께 점심 외식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점심오찬을 마련한 직원은 "비록 작은 행사였지만 가족 친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참여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Inside SUNBO 동호회 소식

### 봉사하는 삶, 봉사동호회!



이번 호에는 야구, 축구, 사진 등 각종 동호회의 활동에 가려져 알려지지 않은 동호회를 소개 한다. 바로 봉사동호회로 비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 하여 봉사를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금번 "인창 노인 요양원"에서 매달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을 계기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형식으로 봉사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봉사동호회는 매월 사보를 통해 소개되는 칭찬텔레이에 선정된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봉사동호회는 과정 인창노인요양원에서 청소, 환경미화를 비롯해 시설보수와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며,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문영 부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동호회는 금전적 후원 또한 중요하고 큰 부분이지만, 그 외 부족한 부분을 '노력 하는 봉사'의 마음을 갖고 활동할 예정이다. 마음 따뜻하고 봉사에 뜻이 있는 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본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신입사원 소개



유시호 이상훈 카필버마 배영근 예분해

Inside SUNBO 회사 소식

### 뮤지컬 "러브인 뉴욕" 단체 관람



우리 회사는 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난달 뮤지컬 "러브인 뉴욕"을 단체 관람했다.

'힙합'을 주제로 한 이 뮤지컬은 업무에 지친 직원들이 신명나는 음악의 세계에 빠져들어 피로를 한방에 날려 버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배우들의 감미로운 노래로 정서함양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번 뮤지컬을 관람한 직원은 "어버이날을 기념할 행사를 찾던 중 회사에서 무료 뮤지컬 관람권을 지급 받게 되었고 덕분에 좋은 가족 행사를 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앞으로도 직원 복지와 문화 행사 참여를 위해 회사는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Inside SUNBO 최동배 부장이 추천하는 협력업체 탐방



### 유연 V&S "젊음의 열정과 패기가 유연 V&S의 원동력이죠"

#### '위풍당당', 그들의 행보

유연 V&S는 산업용 특수밸브를 제작을 주 업무로 조선을 비롯한 플랜트, 건설에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올해로 설립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성장은 말 그대로 '초고속'이다. 홍재욱 대표이사는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우리 회사는 모두 젊은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인지 근무 중이나 근무 이외의 시간에 소통이 원활한 편이다. 그것이 우리 회사를 성장하게 해주는 원동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닌 잠재되어 있는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운영이념이라고 강조한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분포되어 있어 다른 회사에 비해 배움의 욕구가 크고 패기와 열정

로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매사에 협조성이 뛰어나고 자신이 만드는 제품에 관해서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라고 덧붙였다.

#### "내실을 다지는 것이 최우선"

유연 V&S만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 그는 "타 회사와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이 있다기 보다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대응과 융통성이 뛰어난 편"이라고 겸손한 말을 전한다. 현장에서는 빠른 대처를 요구하는 융통성이 생명이라고.

또한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더 이상 조선업계에서 살아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이전에는 영업과 원가가 회사의 성장을 좌지우지했으나 이제는 그에 디자인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는 "품질과 납기준수를 최우선으로 하되, 디자인이 더해져야 경쟁에서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내실을 다지는 것보다 더불어 외형적인 것 또한 뒤쳐지지 않겠다

는 다부진 각오다.

#### 사과의 전환, 그것이 선보가 우리에게 남긴 것

이제 올해로 선보와의 인연을 맺은 지 3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선보에게 배울 점이 많았다고 그는 말한다. "선보가 하루아침에 성장을 한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작은 아이템으로부터 시작해,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꾸준하고, 체계적으로 성장해온 것을 듣고, 또 몸소 깨닫고 있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화해 선보처럼 성장해나가고 싶다"고 그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에 전 직원이 4박5일로 백두산을 다녀왔다고 한다. 백두산 정기를 온 몸에 저장해 둔 그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진다.

"젊은이들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말을 뒷세대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요즘 이러한 말들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다. 이 말은 즉,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쉽고 편한 일들만을 고집하며, 끈기와 패기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금만 힘들다고 생각되면 그만두고, 또 다른 일들을 찾기가 일쑤다. 하지만 유연 V&S는 사정이 좀 다르다. 그들의 속사정을 파헤쳐보자.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 젊음과 성장, 그의 선보 10년 이야기를 듣다



박재용

품질보증부

Q 평소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일할 때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현장에서 맡은 업무는 칼로리파이어와

생생현장의 소리 인터뷰를 위해 찾아가는 그는, 현장에서 자신을 찾는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집중해서 자신의 일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었다. 새까맣게 그을린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성심성의껏 업무에 응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선보에 입사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무언가 형언하기 힘든, 농익은 기운이 느껴진다.

스테레나를 병행해 절단, 용접 등의 일을 주로 하는 편이고, 비철만 하다가 지난해 들어서부터 업무가 확대 되었어요. 이러한 일들을 10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다보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에요. 게다가 주변동료들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직원들이라 10년 동안 일하다 보니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 한결 수월한 편이죠.

하지만 10년 선보에서 일한 인력보다 이제 젊은 인력이 보충되어야 할 텐데, 새로 온 직원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일이 허다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게 힘들어요. 사실 교육시키는 것만큼 이런 상황이 지속 돼 앞으로 회사 업무에 영향을 끼칠까봐 걱정이 앞서요.

Q 평소 어떤 신념으로 업무에 임하시나요?

뭐,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다기보다 워낙 가족 같은 구성원으로 일하다보니까 조금 더 옆에 있는 동료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조선 경기가 예전만큼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쉽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다들 푹푹 뭉쳐서 이겨나

가려고 해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서로를 다독여주는 데는 내공이 쌓여서 앞으로도 별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해요.

선보 안에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그에게서 우직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회사의 앞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젊은 인력의 부족현상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그가 있어 앞으로 선보의 미래는 든든하다. '수퍼 선보인'의 이름에 걸맞는 그의 미래 모습 또한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 건실한 베트남 청년 '디엔'을 만나다



디엔

물류운영팀

외국인 근로자로는 최초로,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

인터뷰하기 전부터 주변 동료들로부터 "디엔은 한국말 잘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든지 "디엔은 착해요, 일도 참 잘 하죠"라는 칭찬을 듣고 만난 그는 생각보다 앳된 모습이었다. 한국 나이로 25살이라는 그는 칭찬릴레이에 선정된 기분이 어떠냐고 묻자 "기분 좋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한다.

선보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1년 반, 그는 이전에 일하던 베트남 출신 직원의 소개로 낯선 땅에 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베트남에서는 한국말을 가르쳐요. 한국말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국에 오기 위해 국가가 정한 정기적인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심사를 통과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바로 디엔이다.

현재 탱크탑 분야에서 일하는 그는 도면을 보는 게 근무 시 가장 큰 고충이라고 한다. "너무 어렵다"고 웃으며 말하는 그에게

서, 수줍은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임대아파트에서 베트남 직원들 6명이 용기종기 모여 살고 있다는 그는 고국인 그리워 집에서 베트남 요리 등을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 먹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 하지만 그걸로도 부족해 베트남이 그리워질 때면 가족 간의 통화와 채팅을 통해 외로움을 달랠다고 말했다.

8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베트남의 국가법과는 달리, 한국은 공휴일을 포함해 12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 때론 심신이 지쳐있기도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는 다음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으로 박상주 여성 팀장을 뽑았다.

그가 낯선 땅에서 일할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분이고, 또 일이든 성품이든 내외로 많이 배우고 싶은 분이라는 이유에서다.

오는 20일에 그는 일생의 한번 뿐인 결혼식을 위해 잠깐 회사를 떠나 휴식을 취한다. 한 달여의 휴가동안 그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 선보에서 보다 활짝 웃을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진다.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본사 생일

1공장 한태영(8/15), 이동해(8/23), 김동섭(8/1) 장호신(8/5/18), 심성섭(8/5/18) 권두철(8/5/10), 안태주(8/5/8) 최경호(8/4/9)

생산부 정석정(8/13), 장국천(8/5/19)

생산관리부 김태호(8/5/7)

2공장 서경일(8/20), 김영자(8/25),

박재근(8/30), 남강현(8/30), 조종환(8/8)

3공장 김명현(8/17), 최병화(8/5/4)

본사 입사기념일

입원 최상식(8/2)

경영지원부 안정빈(8/3)

경영기획 장철민(8/9)

설계부 박환수(8/23), 최진영(8/23)

생산부 김동섭(8/1), 신경섭(8/24), 김형원(8/24)

김대관(8/9), 안태주(8/19), 박상주(8/12)

안대준(8/15), 박승호(8/18), 장인규(8/2)

김종민(8/2), 최철(8/16)

영업부 김광문(8/1)

구평공장 생일

생산관리부 김지훈(8/28)

생산부 김왕곤(8/20), 김태희(8/28), 옥이진(8/7)

임덕민(8/10), 정병용(8/8), 유근화(8/4)

영도공장 생일

생산관리부 이정훈(8/10)

품질보증부 김지훈(8/14)

자재운영부 조연주(8/20)

영암공장 생일

품질보증부 서형철(8/2), 허영군(8/12)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Run SUNBO Run 안정빈 과장의 "틀린 그림" 찾기 - 5곳이 있습니다

